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이재완**

본 연구는 계층상승 가능성, 즉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조사한 「2011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신뢰는 어떤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나 제도를 믿는 것으로, 이웃, 처음 만난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작화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계층이동 사다리로 조작화하였다. 통제변수로 사회적 관계 변인과 개인적 특성 변인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 계층이동 사다리, 즉 계층상승 가능성이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오히려 사회신뢰가 감소하는 비선형(non-linear)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단일시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계층상승 가능성을 분석하였을 뿐이다. 앞으로 여러 시점에 걸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간 또는 세대내의 객관적인 계층이동이 있었는지, 그것이 실제로 사회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계층상승 가능성, 계층이동 사다리, 사회신뢰

I. 서론

본 연구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층이동 사다리, 즉 사회계층의 상승 가능성은 그 사회가 폐쇄적이냐 혹은 개방적이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취물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관한 기대는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됨(NRF-2010-330-B0031).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마트 거버넌스를 위한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박사후 연구원(noso791@gmail.com).

한 구성원이 사회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가지는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보다 더 풍요롭고 더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그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심화로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되었고,¹⁾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역시 하락하고 있다.²⁾ 우리 사회에서 계층이동이 점점 축소되고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으며(이원진, 2011: 26),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진행될수록 사회구성원들의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박찬웅, 2006; 배정현, 2011; 조영호, 2011). 특히 양극화는 하위계층의 중간계층으로의 상향적 이동을 힘들게 만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홍두승, 2005; 남춘호, 2011: 40).³⁾ 사회계층의 상향적 이동, 즉 계층상승 가능성이 떨어지면 사회제도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다(김인영, 2002; 손성립, 1999; 장수찬, 2008).⁴⁾ 이와 같은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는 사회관계의 파괴와 사회분열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협하게 된다(박성진, 2003). 즉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연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계층이동의 통로, 즉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으며(Payne, 2005; 김우열, 201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⁵⁾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임혁백, 2000: 237-241).

사회신뢰는 심리학은 물론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에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온 주제이다(Delhey and Newton, 2003; 김강민, 2011; 김재한, 2009: 17). 특히 Fukuyama

1) 조선일보(2010), “사다리가 사라진다” 시리즈 참조, 2010년 7월 5일~7월 13일.

2)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계층의 세대간 이동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6년 29.0%에서 2009년 30.8%, 2011년 4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대내 이동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2006년 46.7%에서 2009년 48.1%, 2011년 5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2).

3)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한 가구주는 28.8%인 반면,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9%p나 낮아졌다(통계청, 2011). 또한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2012년 12월 22~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6%가 우리 사회를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계층상승 기회가 닫혀 있는 폐쇄적 사회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한겨레21, 2013).

4) 조준현은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자신이 속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계층이동에 힘쓴다. 하지만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당연히 구성원 간에 불신과 갈등이 쌓인다고 분석하였다(한겨레21, 2013).

5) 박근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펀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센터 운영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1995)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신뢰를 개념화하여 신뢰수준이 국가들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저신뢰 사회라고 규정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큰 학문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의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의 신뢰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박희봉·이희창, 2009; 서운석, 2010; 이형우·양승범, 2012).⁶⁾ 뿐만 아니라 사회신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사회자본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왔다(Adler and Kwon, 2000; Putnam, 1993; Fukuyama, 2001; Delhey and Newton, 2003; 김재한, 2009: 18). 이 때문에 사회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수준이 낮은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Alesina and La Ferrara, 2002; Bjørnskov, 2008; 김승현, 2006; 김태중, 2007; 장수찬, 2002a; 2007).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경향은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Delhey and Newton, 2003).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그 사람의 인성, 사회적 지위, 행복이나 삶의 만족 등을 강조한다. 반면,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주로 자발적 결사체 가입,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나 안전, 사회갈등, 민주적 제도에 대한 만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중 사회계층의 이동, 특히 주관적인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계층의 상승 가능성, 즉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2011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⁸⁾ 서울시민들이 인식하는 계층상승 가능성이 사회신뢰(social trus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6) 2005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뢰지수는 30.2%로 노르웨이(74.2%)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으며, OECD 국가 평균(3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2012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33%, 기업에 대한 신뢰가 3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Edelman, 2012).

7)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과 사회신뢰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거주지의 이동을 다루고 있으며(Putnam, 1995; 한준, 2008),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동을 의미하는 사회계층이동과의 관련성은 주로 교육을 통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Mitra, 2008; Wilson and Mayer, 2007). 한편 객관적인 세대간 계층상승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영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Li, Savage and Warde, 2008)가 있으며, 국내의 경우는 계층상승과 일반신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장수찬, 2007)가 존재할 뿐이다.

8) 2011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에 원자료(raw data)가 공개되어 누구나 이용가능한 자료이다.

Ⅱ. 사회신뢰와 계층이동 사다리에 관한 이론적 검토

여기서는 계층이동 가능성(prospect of social mobility)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기초로서, 사회신뢰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다룬 논의들과 계층상승 가능성의 효과를 다룬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신뢰에 관한 논의

1) 사회신뢰의 의미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기본적인 관계로서 개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적인 속성이다. 사회구성원들은 사회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데, 신뢰가 가변적인 삶을 일정한 양식의 관계망과 연결시켜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엄묘섭, 2007).

사회신뢰는 대다수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주제인데, 사회신뢰, 대인신뢰, 일반신뢰 등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이병기, 2010; 이수인, 2010; 김강민, 2011). 사회신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즉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박종민·김왕식, 2006; 이수인, 2010). 즉, 사회신뢰의 대상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추상적인 의미의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박병진, 2007: 77; 이수인, 2010).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사회신뢰는 어떤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나 제도를 믿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상준, 2012).

2)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기존 연구들은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이를 개인적 특성 변인과 사회적 관계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Delhey and Newton, 2003: 95-101).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적 특성 변인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특성이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문화적인 변인이나 종교, 경험, 소속집단 등이 사회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Alesina and La Ferrara, 2002). 유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인성(personality)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성년기의 인생 경험인 사회적 성취(social success)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Delhey and Newton, 2003).

Uslaner(1999)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 사회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주관적인 행복이나 탈물질적인 가치관이 사회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Uslaner, 2002; Inglehart, 1999). 이념도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며(Stewart and Gosain, 2001), 종교 역시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Inglehart, 1999; La Porta et al., 1997). 기독교와 같이 평등지향적인 종교는 사회신뢰를 높이며, 위계적인 특성을 갖는 유교나 이슬람교는 사회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신뢰의 위험(risk)도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가난한 자는 배신으로부터 오는 손해를 감당할만한 여유가 없으며, 부자는 배신으로부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신뢰로부터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불신성향이 더 강하다고 한다(Banfield 1958: 110; Delhey and Newton, 2003 재인용). Putnam(2000)은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우받은 사람들은 가난과 실업, 차별과 착취,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쉽게 믿는다는 것이다. 또한 Patterson(1999)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 극빈자들과 흑인들이 훨씬 불신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그는 ‘걱정과 불안은 불신을 이끄는 강한 힘’이라고 주장하였다(Delhey and Newton, 2003).

개인들의 특성인 사회적 지위, 교육과 같은 변인들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Brehm and Rahn, 1997; Newton, 1999; Orren, 1997; Delhey and Newton, 2003). 특히 사회적 지위, 즉 계급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신뢰가 높다는 것이다(Lount and Pettit, 2012; 장수찬, 2002a; 이수인, 2010). 그리고 교육은 미국과 다른 서구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사회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2000; 장수찬, 2002a; 이수인, 2010).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더 관대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ochreigh and Rotter, 1970; 서운석, 2013). 한편 서구 사회에서 성별은 큰 차이가 없지만(Whiteley, 1999; Newton, 2001),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덜 신뢰한다고 한다(Patterson, 1999: 173). 여성들은 성차별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육아부담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사회를 더 불신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신뢰한다는 연구(장수찬, 2002a; 이수인, 2010)와 여성이 더 신뢰한다는 연구결과가 상존하고 있다(이현수, 1999).

(2) 사회적 관계 변인

사회신뢰는 사회문화와 사회정치적 제도는 물론 지역사회의 특성과 거주기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Alesina and La Ferrara, 2002; Delhey and Newton, 2003).

사회신뢰는 민주적인 제도나 문화, 그리고 경제수준에 영향을 받는다(Putnam, 2000: 138; Knack and Keefer, 1997: 1257). 부유하고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된 국가들은 가난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들보다 사회신뢰가 높고(Inglehart, 1999; Knack and Keefer, 1997), 또한 민주국가는 비민주적인 국가보다 더 신뢰한다(Newton, 2001; Paxton, 2002).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체제를 가진 국가들보다 사회신뢰가 높다(Rothstein and Stolle, 2001). 또한 사회양극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신뢰수준이 높다(Knack and Keefer, 1997; Delhey and Newton, 2003). 영국의 사회신뢰를 연구한 Li, Savage와 Warde(2008)는 사회계층의 이동(mobility)이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신뢰 원인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의 증가, 익명성의 증가,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의 대치 등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박찬웅, 2006: 27).

한편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organizations)가 많고 다양할수록 사회신뢰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다. 자발적 결사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타인과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은 신뢰, 호혜성, 협력, 감정이입, 공동관심사에 대한 이해 등 심리적 습성(the habits of the heart)을 반영하는 것이라 한다(Bellah et al., 1985). 일상생활 속의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사회신뢰에 더 중요하다고 한다(Yamagishi and Yamagishi, 1993). 사회관계망은 특히 동유럽이나 중부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Kolankiewicz, 1994; Sztompka, 1996).

지역사회(community)의 특성도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들은 규모가 작은 도시가 더 높은 신뢰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House and Wolf, 1978). 그러나 Knack과 Keefer(1997)가 국가간 횡단면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사회신뢰는 도시화, 인구밀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나 안전도가 사회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Delhey and Newton, 2003). 또한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geographical mobility)은 사회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esina and La Ferrara, 2002).

2. 계층이동과 계층상승 기능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1) 계층이동의 의미

계층이동은 어떤 사회구성원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조창희, 1984; 홍두승·구해근, 2001). 계층의 이동성을 기준으로 계층 간의 이동이 활발한 사회를 개방사회라고 하고, 그 이동성의 정도가 약한 사회를 폐쇄사회라고 할 수 있다(홍두승·구해근, 2001). 계층이동은 그 방향성을 기준으로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고, 수직적 이동은 다시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홍두승·구해근, 2001).

계층이동은 실제 개인의 직업,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바뀌어 발생하는 객관적 계층이동(objective social mobility)과 계층이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perception) 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 계층이동(subjective social mobility)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Duru-Bellat and Kieffer, 2008; Kelly and Kelly, 2009).

2) 계층이동의 효과

계층이동은 개인의 생각, 태도나 행태, 삶의 만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Kelly and Kelly, 2009). 한편 계층이동의 심리적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불안에 초점을 두는데, 심리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Sorokin(1959)의 연구로부터 출발한다(홍두승·구해근, 2001).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Houle, 2011).

첫째, 분열가설(dissociative hypothesis)로, 이전 또는 현재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면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상승이동이든 하강이동이든 그동안 친숙해져 있던 사회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새로운 사회계층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양춘 외, 2001: 135).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계층의 규범, 가치, 행위기대 등 적응하기 위해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행복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한다(Lipset and Bendix, 1959; Sorokin, 1959; Wheaton, 1994; Houle, 2011 재인용). 이동의 결과로 편견이 심화되거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Sorokin, 1959; 홍두승·구해근, 2001).

둘째, 품위하락가설로, 경제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강한 사회적·역사적 환경 속에서 계층의 하강이동과 관련된 것이다. 계층하락은 성취지위의 비자발적인 상실로서, 개인의 성공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계층하락은 목표와 기대의 좌절을 가져오고, 패배감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자기비난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Newman, 1999; Houle, 2011).

최근의 실증연구는 블루칼라에서 계층이 하락하는 경우보다 화이트칼라에서 계층이 하락한 경우 패배감으로부터 오는 정신건강 악화에 시달린다고 한다(Newman, 1999). Dooley와 그의 동료들(2000)은 좋은 직장(전일제, 고임금)에서 저급한 직장(시간제, 저임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셋째, 적응가설로, 계층이동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안녕과 관련이 없으며, 정신건강은 현재 몸담고 있는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계층이 바뀐 개인은 새로운 계층에서도 기존 계층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한다(Blau, 1956; Houle, 2011 재인용). 즉 계층을 이동한 개인은 새로운 계층에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계층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현재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과 유사하게 된다. Marshall과 Firth(1999)는 동·중부 유럽국가와 영국, 미국 등 10개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층이동이 가족, 공동체, 일, 소득, 정치활동 등의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Giddens, 2009; 김미숙 외, 2011: 429).

한편 개인의 정신건강 이외에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Li, Savage와 Warde(2008)는 영국 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계층상승과 하락이 사회적 접촉과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객관적인 계층상승과 하락은 모두 사회적 접촉과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층이동 경험이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 신뢰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또한 선진민주국가 17개국을 대상으로 계층상승과 사회신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장수찬의 연구(2008)에서도 계층이 상승할수록 사회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신뢰위기를 연구한 김종길(2005)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지역이동, 직업이동, 계층이동 등이 신뢰를 저해한다고 분석하였다(최항섭, 2007 재인용).

3) 계층상승 가능성의 효과와 사회신뢰

주관적 계층이동 혹은 계층상승 가능성(prospect of upward mobility)은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영향을 준다. 개인의 근로, 저축과 같은 경제적 행동과 임금 불평등이나 재분배정책 등에 관한 정치적 태도는 물론 출산과 같은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Graham and Picon, 2009). 뿐만 아니라 편견이나 아노미, 삶의 만족이나 사회관계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Kelly and Kelly, 2009).

계층상승 가능성이 사회구성원의 태도나 행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선 인구사회학 분야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은 부모들의 자녀 출산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실증분석한 바 있다(Stevens, 1981; Kasarda and Billy, 1985; Dalla Zuanna, 2007). 또한 경제학 분야에서 현재 사회의 임금이나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하고(Clark and D'Angelo, 2009), 계층상승 가능성은 근로시간, 주식투자, 은퇴 시기, 재혼 등의 경제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Puri and Robinson, 2005).

한편 계층상승 가능성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선 계층상승 가능성은 사회신뢰와 사회통합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존재한다(김인영, 2002). 계층상승 가능성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 재능과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조창희, 1984). 이 때문에 사회제도나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반면 계층상승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메커니즘에 균열이 생기고, 자신의 노력으로 소득향상이나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을 확산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그 사회의 경제구조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게 된다(Birdsall and Graham, 2000; 손성림, 1999). 즉 사회제도와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계층이동이 점점 힘들어져 계층의 고착화가 진행되면 하위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사회적 소외문제가 심화되어 결국 사회구성원들과의 단절 및 불신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우천식·이경영, 2006).

3. 선행연구의 검토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변인과 사회제도나 구조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다. 특히 소득, 계층 등 현재의 상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계층이나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사회관계와 태도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홍두승·구해근, 2001), 주관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계층이동의 통로가 있는지 또는 삶의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는 객관적인 개방성보다 주관적인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홍두승·구해근, 2001).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그의 심리상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간의 계층상승 가능성과 사회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계층상승 가능성이 사회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주장에 그쳐 왔으며, 그 인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의 가설과 연구방법

1) 본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본 연구는 사회신뢰에 대한 계층상승 가능성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이 인식하는 사회계층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사회관계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인 계층상승 가

능성은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맞닿아 있어(Gaviria, 2007; Jin and Tam, 2013),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나 사회제도를 보다 잘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회신뢰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지위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주장한다(Eaton et al., 2001). 또한 상향적 계층이동이 매우 크다는 것은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 등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긴장감만 초래하여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우천식·이경영, 2006).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계층이동 사다리는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사회신뢰”이며, 독립변수는 “계층상승 가능성”이다. 그리고 통제변수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적 관계 변인과 개인적 특성 변인들로 설정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우선 “사회적 관계 변인”으로는 수직적 결사체, 수평적 결사체, 정치적 결사체 참여여부,⁹⁾ 자원

9) Rothstein(2001)은 정당 가입 등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뢰수준이 높다고 하였다(박희봉 외, 2003).

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지역사회의 위험도, 거주기간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 변인”은 종교, 탈물질주의 가치관, 행복, 이념, 주관적 계층, 직업, 소득, 학력, 성별, 연령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모형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상승 가능성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고 통상최소자승추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하였다.¹⁰⁾

$$\begin{aligned}
 \text{모형} \quad ST = & \alpha + \beta_1 USM + \beta_2 (USM)^2 + \beta_3 VG + \beta_4 HG + \beta_5 PT + \beta_6 VO + \beta_7 DO \\
 & + \beta_8 PR + \beta_9 RS + \beta_{10} RP + \beta_{11} CH + \beta_{12} CA + \beta_{13} BU + \beta_{14} CO + \\
 & \beta_{15} OR + \beta_{16} PM + \beta_{17} HP + \beta_{18} ID + \beta_{19} SS + \beta_{20} FJ + \beta_{21} PJ + \\
 & \beta_{22} IN + \beta_{23} ED + \beta_{24} SE + \beta_{25} AG + \epsilon
 \end{aligned}$$

여기서, ST=사회신뢰, USM=계층상승 가능성, (USM)²=계층상승 가능성 제곱항, VG=수직적 결사체 참여더미, HG=수평적 결사체 참여더미, PT=정치적 결사체 참여더미, VO=자원봉사활동, DO=기부활동더미, PR=시민자부심, RS=지역사회 위험도, RP=거주기간, CH=기독교더미, CA=천주교더미, BU=불교더미, CO=유교더미, OR=기타 종교더미, PM=탈물질주의, HP=행복, ID=이념, SS=현재사회계층, FJ=정규직더미, PJ=비정규직더미, IN=소득, ED=학력, SE=성별더미, AG=연령, α=상수, ε=오차항

2. 데이터의 출처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2011 서울서베이 데이터

서울특별시 서울의 인구구조 및 특성을 분석해 시정운영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1 서울서베이」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서울거주 가구 및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조사대상의 크기는 2만 가구의 15세 이상 45,605명이었다. 서울시 행정자료인 2011년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DB 연계자료를 표집틀로 활용하여 층화군집추출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1:1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12: 15). 표본추출 과정을 좀 더 구체

10)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는 계층상승 가능성에 따른 사회신뢰 차이분석 결과, 둘 간의 역U자형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계층상승 가능성의 제곱항을 포함하였다.

적으로 설명하면, 층화2단 집락추출법(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는데, 자치구(25개), 행정동(424개), 주택유형(4개)을 층으로 삼고, 동일한 통/반의 동일한 주택유형을 갖는 세대들을 묶어 집락(cluster)을 구성하여 조사대상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가구주 $\pm 0.69\%$ p, 가구원 $\pm 0.46\%$ p이다(서울특별시, 2012: 15-16).

2011년부터 새롭게 조사하기 시작한 사회신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점수는 5.23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가족(8.69점), 이웃(5.81점), 공공기관(5.14점) 순으로 높았다. 처음 만난 사람(3.25점)과 다른 나라 사람(3.25점)은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2: 265).

2) 주요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1) 사회신뢰의 측정

본 연구에서의 사회신뢰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일반신뢰보다 넓은 개념으로 조작화하였다. 즉 사회신뢰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다른 사람이나 제도를 믿는 것으로, 신뢰주체와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생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웃, 처음 만나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¹¹⁾ 「2011 서울서베이」의 설문문항 역시 1) 이웃, 2) 처음 만난 사람, 3) 다른 나라 사람, 4)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묻고 있다. 즉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매우 신뢰(5점)-약간 신뢰(4점)-보통(3점)-별로 신뢰 안함(2점)-전혀 신뢰 안함(1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신뢰는 위 4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를 모두 합한 후 4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¹²⁾

(2) 계층상승 가능성의 측정

본 연구에서 계층이동 사다리, 즉 계층상승 가능성은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①매우 높다, ②다소 높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다소 낮은 편이다, ⑤매우 낮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카테고리의 배열순서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 역코딩해 계층상승 가능성 점수로 환산하였다.

(3) 통제변수의 측정

① 사회활동 관련 변인의 측정

11) 가족에 대한 신뢰는 혈연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본 연구의 사회신뢰에서 제외하였다.

12)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사회신뢰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0.7033이었다.

먼저 수직적, 수평적, 정치적 결사체 참여여부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류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측정하였다.¹³⁾ 수직적 결사체 참여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박희봉 외, 2003), 응답카테고리 중 ‘동창회/동창모임,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의 선택으로 측정하였다. 수평적 결사체 참여여부는 특별한 연고 없이 누구에게나 가입과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박희봉 외, 2003), 응답카테고리 중 ‘친목회/친목계,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종교단체, 기타’의 선택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결사체의 참여여부는 정치활동을 위한 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카테고리 중 “정당”을 선택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은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세부항목인 ‘1) 환경보전 등과 관련, 2) 자녀교육 등과 관련,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 4) 기타 자원봉사 활동’의 연간 참여횟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기부활동은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였습니까?”라는 질문의 ‘①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현금 직접 기부, ③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기부한 적이 없다’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⑤기부한 적이 없다’를 기준(0값)으로 하고, 나머지 응답을 1값으로 측정하였다.

시민 자부심은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한 점수로 측정하였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①20점 이하, ②21~40점, ③41~60점, ④61~80점, ⑤81~100점이다.

지역사회의 위험도는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세부항목인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2)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 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매우 위험하다(5점)-약간 위험하다(4점)-보통이다(3점)-별로 위험하지 않다(2점)-전혀 위험하지 않다(1점)’로 되어 있으며, 각 세부항목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산하여 문항 수인 4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다.¹⁴⁾

거주기간은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①10년 미만, ②10~19년, ③20~29년, ④30~39년, ⑤40~49년, ⑥50년 이상’으로, 그 응답점수로 측정하였다.

13) 수직적, 수평적, 정치적 결사체의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기준(reference)은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비참여(=0)로 설정하였다.

14) 지역사회 위험도의 Cronbach's α 는 0.7919로 나타났다.

② 개인적 특성 변인의 측정

우선 개인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종교는 응답자가 믿는 종교를 기준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종교, 무교(기준)로 구분하여 각각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탈물질주의¹⁵⁾ 가치관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질문 중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매우 그렇다(5점)-약간 그렇다(4점)-보통이다(3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되어 있으며, 응답 점수로 측정하였다.

행복은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세부항목인 ‘1) 자신의 건강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4) 가정생활,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5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¹⁶⁾

이념은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의 항목인 ‘1)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약간 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네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을 합산한 후 그 평균값으로 ‘이념’으로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임을 의미한다.¹⁷⁾

주관적 계층¹⁸⁾은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인 ‘①상상, ②상하, ③중상, ④중하, ⑤하상, ⑥하하’의 점수를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직업의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전일제 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으로, 시간제나 기타 형태로 근무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를 무직(기준)으로 조작화하였다.

소득은 1년 동안의 가구 월평균 소득(세전소득)으로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미만, ③200~300만원 미만, ④300~400만원 미만, ⑤400~500만원 미만, ⑥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한 후 그 응답점수로 측정하였다.

15) 탈물질적인 가치관은 물질 외에 보다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옥·이이범, 2006: 93).

16) 행복지수의 Cronbach's α 는 0.8405로 나타났다.

17) 이념성향의 Cronbach's α 는 0.5495로 다소 나타났다.

18) 사회계층을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나 Vanneman과 Cannon의 연구(1987)에 따르면, 객관적인 사회계층과 계층의식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김병조, 2000 재인용).

학력은 최종졸업 학력을 기준으로 ‘①중졸 이하, ②고졸 이하, ③대졸 이하, ④대학원 이상’로 분류한 후 그 응답점수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응답자의 성으로 여성을 기준(0값)으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실제 나이로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으로 분류한 후 그 응답점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의 변수와 측정

영역	변수	설문문항	측정
종속 변수	사회신뢰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이웃, 2) 처음 만난 사람, 3) 다른 나라 사람, 4) 공공기관	매우신뢰(5점) ... 전혀 신뢰안함(1점), 4개 항목의 응답점수의 합÷4
독립 변수	계층상승 가능성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1점)-매우 높다(5점)
사회적 관계 변인	수직적 결사체 참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동창회/동창모임, 지역모임/향우회/중친회’를 선택한 경우	참여=1, 비참여=0
	수평적 결사체 참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친목회/친목계,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종교단체, 기타’를 선택한 경우	참여=1, 비참여=0
	정치적 결사체 참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정당’을 선택한 경우	참여=1, 비참여=0
	자원봉사 활동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셨습니다?	연간참여횟수의 합산
	기부활동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부한 적 없다(=0), 있다(=1)
	시민 자부심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① 20점 이하 ... ⑤ 81-100점
	지역사회 위험도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2)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	매우 위험하다(5점) ... 전혀 위험하지 않다(1점)
거주기간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	①10년 미만 ... ⑥50년 이상	
개인적 특성 변인	종교	응답자의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종교, 무교(기준)	해당(=1), 비해당(=0)
	탈물질 주의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질문 중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매우 그렇다(5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
	행복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자신의 건강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4) 가정생활,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각 항목의 응답점수의 합 ÷5

이념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4개 항목의 응답점수의 합÷4
주관적 계층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하하 ... ⑥상상
직업	정규직(전일제), 비정규직(시간제, 기타), 무직(기준)	해당(=1), 비해당(=0)
소득	1년 동안의 가구 월평균 소득(세전소득)	①100만원 미만 ... ⑥500만원 이상
학력	응답자의 최종 학력	①중졸 이하 ... ④대학원 이상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응답자의 나이	①10대 ... ⑥60대 이상

IV. 분석의 결과

1.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51.91%로 남성 48.09%보다 약간 많다. 연령 분포에서 40대가 24.9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0.87%, 50대 18.07%, 60대 이상이 15.82%, 20대 12.70% 순이었다. 거주기간의 경우 30~39년이 27.53%로 가장 많았고, 20~29년 26.60%, 40~49년 16.58%, 10~19년 16.44%, 50년 이상 8.38%, 10년 미만 4.47% 순이었다.

종교의 경우 무교가 47.39%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6.94%, 천주교 13.15%, 불교 11.8%, 유교 0.46%, 기타 종교 0.24% 순이었다. 주관적 계층의 경우 중하가 53.50%, 중상이 23.85%로 대부분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직업의 경우 정규직이 53.34%, 무직이 41.69%, 비정규직이 5.03%를 차지하였다. 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26.18%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이 24.80%, 400~500만원이 23.29%, 200~300만원이 14.15%, 100~200만원이 8.94%, 100만원 이하가 2.65%였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 47.6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 38.53%, 중졸 이하 12.08%, 대학원 이상 1.70%였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변수	범주	빈도(비율 %)	변수	범주	빈도(비율 %)	
성별	여성	23,673(51.91)	학력	중졸 이하	5,510(12.08)	
	남성	21,932(48.09)		고졸 이하	17,572(38.53)	
연령	10대	3,441(7.55)		대졸 이하	21,748(47.69)	
	20대	5,794(12.70)		대학원 이상	775(1.70)	
	30대	9,520(20.87)		직업	정규직	24,325(53.34)
	40대	11,393(24.98)			비정규직	2,287(5.03)
	50대	8,243(18.07)	무직		18,983(41.63)	
	60대 이상	7,214(15.82)	주관적 계층	하하	1,424(3.12)	
거주 기간	10년 미만	2,037(4.47)		하상	7,721(16.93)	
	10~19년	7,499(16.44)		중하	24,398(53.50)	
	20~29년	12,130(26.60)		중상	10,877(23.85)	
	30~39년	12,556(27.53)		상하	1,131(2.48)	
	40~49년	7,563(16.58)		상상	54(0.12)	
	50년 이상	3,820(8.38)	소득 ^{a)}	100만원 이하	1,208(2.65)	
종교	기독교	12,287(26.94)		100~200만원	4,074(8.94)	
	천주교	5,996(13.15)		200~300만원	6,448(14.15)	
	불교	5,391(11.82)		300~400만원	11,303(24.80)	
	유교	208(0.46)		400~500만원	10,617(23.29)	
	기타 종교	111(0.24)		500만원 이상	11,934(26.18)	
	무교	21,612(47.39)	주 a): 소득의 경우 결측치 21개가 존재함.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서울시민들의 사회신뢰의 전체 평균은 2.751로 나타났다. 한편 계층이동 사다리, 즉 계층상승 가능성의 서울시 전체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12점, 표준편차는 0.84점을 기록했다. 평균값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사회계층의 상승에 대한 기대는 그리 낮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원봉사는 5점 만점에 평균 1.133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시민 자부심은 3.948, 탈물질주의 3.386으로 중간보다 높았으며, 지역사회 위험도는 2.837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다. 행복은 10점 만점에 6.707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이념의 평균은 3.209로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신뢰	45,605	2.751	0.629	1	5
계층상승 가능성	45,605	3.120	0.841	1	5
자원봉사	45,605	1.133	0.309	1	5
시민 자부심	45,605	3.948	0.748	1	5
지역사회 위험도	45,605	2.837	0.766	1	5
탈물질주의	45,605	3.386	0.930	1	5
행 복	45,605	6.707	1.167	0	10
이 념	45,605	3.209	0.585	1	5

2. 분석결과

1) 계층상승 가능성에 따른 사회신뢰 차이분석

계층상승 가능성에 따른 사회신뢰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ANOVA 분석결과, 계층상승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사회신뢰의 평균은 2.494였으며, 낮은 수준에서 사회신뢰의 평균은 2.660, 보통인 경우의 사회신뢰는 2.772, 높은 경우는 2.803이었다. 그러나 계층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사회신뢰의 평균은 2.690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4점일 때까지는 사회신뢰가 상승하다가,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신뢰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사회계층 이동이 빈번하다는 것으로, 사회구조가 불안정하여 그 구성원들의 계층의식 형성을 저해하게 된다(양춘 외, 2001). 그 결과 분열가설(dissociative hypothesis)의 주장과 같이, 사회계층이동이 빈번할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Lenski, 1954; Sorokin, 1959; 홍두승·구해근, 200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계층이동 사다리는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비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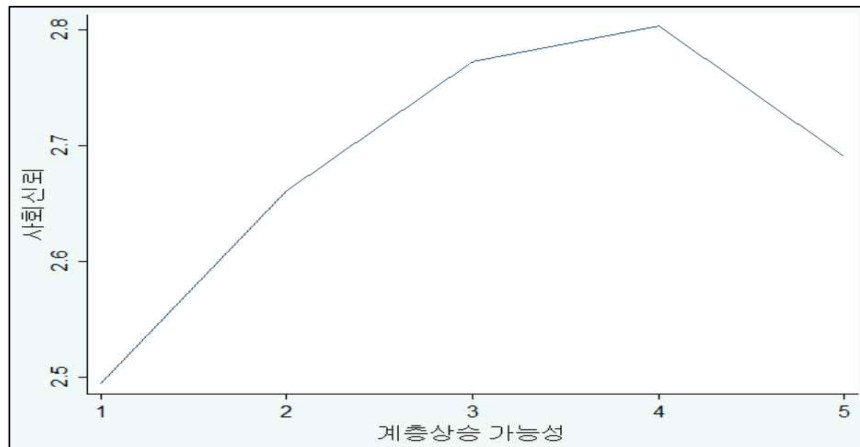
분산분석을 통해서도 계층상승 가능성과 사회신뢰가 비선형(2차 함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Scheffe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사회신뢰에 대해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와 ‘매우 높다’가 같은 그룹으로 묶였다.

〈표 5〉 계층상승 가능성에 따른 사회신뢰

계층상승 가능성	빈도	사회신뢰	
		평균	표준편차
매우 낮다	1,533	2.494 ^a	0.684
낮다	8,038	2.660 ^b	0.610
보통이다	20,552	2.772 ^c	0.634
높다	14,403	2.803 ^d	0.611
매우 높다	1,079	2.690 ^b	0.661
F-값		140.41***	

주: * p<0.1, ** p<0.05, *** p<0.01, 사후분석(Scheffe): a<b<c<d.

〈그림 2〉 계층상승 가능성과 사회신뢰의 관계



2)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신뢰와의 상관관계를 보면,¹⁹⁾ 행복이 0.176을 나타냈으며, 계층상승 가능성이 0.08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계층 0.0743, 시민 자부심 0.0576, 탈물질주의 가치관 0.056 순이었다. 한편 지역위험도는 -0.025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한 결과, 전체 설명변수들의 평균 VIF는 1.22로 나타났다. 개별 설명변수 중 연령 1.98, 거주기간 1.54, 학력 1.49, 정규직 1.46, 행복 1.36, 주관적 계층 1.28, 소득 1.25, 성별 1.24이었으며, 나머지 설명변수들의 VIF는 1.2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19) 주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부록 1에 나타나 있다.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상관분석은 혼란변수들(confounding variables)이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계층이동 사다리, 즉 계층상승 가능성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독립변수인 계층상승 가능성은 사회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사회이동과 사회신뢰를 연구한 Li, Savage와 Warde(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계층의 상승 가능성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란 희망을 제공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창희, 1984: 322). 또한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품었던 적개심이 완화되고 서로 신뢰하게 된다(Wilkinson, 2005; 김수홍, 2008: 38). 반면 사회이동의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계층별로 구분되어 끼리끼리 모여 사는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상호불신이 증가한다(Wilkinson and Pickett, 2009). 따라서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어 열의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기회의 땅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계층상승의 통로가 열려있는 개방사회의 경우 폐쇄사회에 비해 사회신뢰가 높다고 한다(김재한, 2009). Uslaner(2002)는 국가단위의 연구에서 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신뢰한다고 분석하였으며, 미국의 주단위를 연구한 Kawachi와 Kennedy(1997)도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는 타인을 이용하려는 속성 때문에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소득분배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Wilkinson, 2005; 김수홍, 2008: 56 재인용). 한 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업적이 공정하게 평가받아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개인은 그 사회가 평등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그 개인이 사회공동체 내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공공기관들을 보다 신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모든 계층에서 사회이동이 가능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신뢰가 충만하고 정치적·사회적 통합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계층상승과 일반적인 신뢰수준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장수찬(2007: 147-14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계층상승 가능성에 따른 사회신뢰 차이분석 결과 나타난 비선형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의 제곱항(2차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계층상승 가능성의 제곱항의 회귀계수가 -0.038 로 역(逆) U자형의 곡선임이 확인되었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증가하면 일정 수준

까지는 사회신뢰가 상승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사회신뢰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계층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불신을 초래한다(우천식·이경영, 2006: 99). 즉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를 의미하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우천식·이경영, 2006: 99), 경쟁 압력이 매우 크며 주변사람들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여 잘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계층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 사다리를 타고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동안 익숙했던 가치, 이해관계, 정체성 등과 멀어져야 한다는 우려가 높아져서 사회신뢰가 낮아질 수도 있다(Nee and Sanders, 2001: 374). 그리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지위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게 되어 사회를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다(Lenski, 1954). 즉, 계층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직업이나 소득수준 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단기간에 만회할 수 없는 상류층의 교양이나 문화수준 등에 비해 자신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 지위불일치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졸부(狝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변사람들의 비난까지 받는다면 사회신뢰는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구성원은 항상 자신의 주변 사람 및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와 경계심을 보이고 불신과 불안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Lenski, 1954).²⁰⁾ 따라서 계층상승 가능성은 사회신뢰에 대해 역 U자형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들 중 우선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의미하는 수직적 결사체 참여와 수평적 결사체 참여는 사회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결사체들이 소집단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폐쇄적·배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Newton, 1999; 장수찬, 2004; 김재한, 2009). 류석춘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창회 등의 연고집단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경우도 참여가 제약되어 있고 폐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소극적인 참여자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덜 신뢰하는 것이다(유재원, 2000; 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즉 자발적인 단체 내에서 형성

20)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 제도의존적 신뢰는 높아지지만, 사회이동의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정의존적 신뢰와 특성의존적 신뢰가 낮아지게 된다(Zucker, 1986). Zucker(1986)는 신뢰 생성 방법에 따라 신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과정의존적 신뢰(process-based trust)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평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둘째, 특성의존적 신뢰(characteristic-based trust)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귀속적인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고, 셋째, 제도의존적 신뢰(institutionally-based trust)는 공식적인 제도나 조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은 수준에서는 제도의존적 신뢰의 증가분이 크지만, 매우 커지면 과정의존적 신뢰와 특성의존적 신뢰의 감소분이 커져 전체적인 사회신뢰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사회신뢰를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된 신뢰가 일반화된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Delhey and Newton, 2003; 이동원, 2013). 반면 정치적 결사체 가입은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정치참여와 일반신뢰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장수찬(2007: 13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신뢰에 긍정적이었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Uslander(2002)가 일반신뢰는 자원봉사활동에 의해서 더욱 형성되고 촉진된다고 한 주장과 유사한 결과이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부활동의 경우는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slander(2002)가 일반신뢰는 기부활동에 의해서 더욱 형성되고 촉진된다고 한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기부활동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비대면적인 ARS 방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²¹⁾ 또한 사회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적인 동기가 아닌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명예나 체면 때문에 기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argeant, 1999). 이와 같이 서울시민들의 기부활동은 비대면 방식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zeskowiak와 그의 동료들(2003)의 지역사회 거주자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한편 지역사회의 위험도는 Slovic(1993)은 지역사회의 위험이 신뢰를 낮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부호를 나타냈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거주기간은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시 6개 자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숙종 외(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아져서 불신을 증가한다는 한준(2008: 65-66)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강도(intensity)는 강해지나 범위(scope)는 좁아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이숙종 외, 2009).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기간의 장기화 또는 낮은 지리적 이동성은 지역사회의 배타적인 성격을 강화시켜 새로운 이주자나 이방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변인들 중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의 경우는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 반면, 유교는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Inglehart(1999)의 주장과 같이 종교와 사회신뢰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Fukuyama(1995)의 주장처럼 유교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You, 2005: 17; 장수찬, 2004). 전체적으로 유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을 ‘불안하지 않은 것’으로 승화시켜 타자를 신뢰하게 만든다고 한다(정진홍, 2007: 161).

21) 기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26,590명(58.31%)인 반면 기부를 하는 사람이 19,015명(41.69%)이다. 기부를 하는 사람을 다시 기부방식별(복수응답)로 살펴보면, ARS가 19,015명, 현금 직접기부 3,107명, 지로나 온라인 425명, 물품 55명이다.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eta)	t	
		B	표준오차			
독립 변수	계층상승 가능성	0.266***	0.018	0.356	14.42	
	(계층상승 가능성) ²	-0.038***	0.003	-0.308	-12.52	
통제 변수	사회적 관계 변인	수직적 결사체	-0.096***	0.030	-0.014	-3.19
		수평적 결사체	-0.035***	0.008	-0.023	-4.61
		정치적 결사체	0.060	0.059	0.005	1.02
		자원봉사활동	0.002	0.010	0.001	0.19
		기부활동	-0.061***	0.006	-0.048	-9.98
		시민자부심	0.016***	0.004	0.019	3.92
		지역사회위험	-0.005	0.004	-0.006	-1.24
	개인적 특성 변인	거주기간	-0.011***	0.003	-0.023	-4.06
		기독교	0.071***	0.007	0.050	10.23
		천주교	0.114***	0.009	0.058	12.25
		불교	0.040***	0.009	0.022	4.49
		유교	-0.134***	0.042	-0.014	-3.18
		기타종교	0.206***	0.058	0.016	3.57
		탈물질주의	0.014***	0.003	0.020	4.29
		행복	0.092***	0.003	0.170	32.28
		이념성향	0.167***	0.005	0.156	33.71
주관적 계층		0.018***	0.004	0.023	4.49	
변인	정규직	-0.008	0.007	-0.006	-1.11	
	비정규직	-0.008	0.013	-0.003	-0.59	
	소득	-0.013***	0.002	-0.029	-5.85	
	학력	6.17e-05	0.005	7.03e-05	0.01	
	성별	1.53e-04	0.006	1.22e-04	0.02	
	연령	0.034***	0.003	0.079	12.37	
절편		1.004***	0.042	.	23.64	
관측치		45,584				
R^2 (Adjusted R^2)		0.0733 (0.0728)				
F-test		144.11***				

주: * p<0.1, ** p<0.05, *** p<0.01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경우도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Inglehart와 Abramson (1994)의 주장과 일치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물질주의와 낮은 신뢰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도 유사하다(박진영·최혜원·서은국, 2012).

행복도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하위지표 모두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Bjørnskov(2008)의 주장처럼 행복과 사회신뢰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행복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회신뢰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념의 경우 진보적일수록 사회신뢰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호혜성을 배태시키고, 이 호혜성을 통해 사회신뢰를 증진시킨다고 한다(박통희, 2010: 79). 즉, 진보적일수록 호혜성 규범을 강화시켜 사회신뢰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진보주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가치 공유,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그들과의 유대와 통합을 위해 사회신뢰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Stewart and Gosain, 2001).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ount와 Pettit(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계층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 사회에서 성취한 것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회신뢰가 높은 것이다.

소득은 사회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nfield(1958)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다. 그는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잘못 믿어 발생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라는 완화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신뢰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의 소득은 다른 혼란변인들(confounding variables), 예를 들면 주관적인 계층의식이나 경제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도 높고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계층과 계층상승 가능성을 통제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앞서 언급한 혼란변인 이외에도 우리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한국 사회가 불안정하고 역동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불안과 불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은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더 관대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Hochreigh and Rotter, 1970).

그러나 직업의 경우는 무직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성별의 경우도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성별이 사회신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Whiteley, 1999: 41; Newton, 2001). 학력의 경우도 사회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인 <부록 1>을 보면, 사회신뢰와 소득의 상관계수는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계층이동 사다리, 즉 계층상승 가능성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계층상승 가능성에 따른 사회신뢰의 차이를 ANOVA 분석한 결과, 계층상승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신뢰의 평균값도 상승하여 계층상승 가능성이 4점일 때 사회신뢰의 평균이 2.80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계층상승 가능성(1차항)은 사회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계층상승 가능성의 제곱항(2차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따라서 계층상승 가능성은 사회신뢰에 대해 선형이 아닌 비선형적(non-linear)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수준까지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면 사회신뢰도 상승하나,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계층상승 가능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신뢰는 하락하는 것이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불신을 초래한다. 또한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이 따르는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를 의미하여 경쟁 압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여 주변사람들을 경쟁상대로만 인식하여 잘 신뢰하지 않게 된다. 한편 계층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지위불일치가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다(Lenski, 1954).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면 직업이나 소득수준 등은 쉽게 향상되지만 장기에 걸쳐 형성되는 교육수준은 낮아 개인 차원에서 지위불일치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구성원은 항상 자신의 현재 지위와 주변 사람 및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와 경계심을 보이고 불신과 불안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Lenski, 1954). 따라서 계층상승 가능성은 사회신뢰에 대해 초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계층이동 사다리, 즉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온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의 사회계층이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위치재(position goods)의 성격을 갖는 선호 직종이나 직위를 귀속적 속성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채용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승자독식, 그에 따른 지위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좌절을 예방하기 위해 경쟁의 원칙과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패자부활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단일시점의 횡단면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회이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러 시점에 걸친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대간 또는 세대내 객관적 계층이동이 있었는지, 그것이 실제로 사회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변수들에 단일조작화의 문제가 있다. 탈물질주의의 경우 Inglehart는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단일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하나의 문항이 추상적인 구성개념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원적 조작주의를 활용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강민. (2011).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소. 37(3): 1-25.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 241-268.
- 김승현. (2006). 사회적 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역사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15(4): 123-147.
- 김옥·이이범. (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 김인영. (2002). 한국과 이탈리아의 (저)신뢰비교. 김인영 편.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거시적 접근」. 서울: 소화.
- 김재한. (2009). 「동서양의 신뢰」. 서울: 아카넷.
- 김우택·김지희 편. (2002).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서울: 소화.
- 김지희 편. (2007). 「신뢰사회를 향하여: 한국의 사회발전과 부문별 신뢰구축방안 연구」. 서울: 소화.
- 김태종. (2007). 사회신뢰의 수준 및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 KDI-KISDI 공동세미나 사회적 자본: 정부의 역할과 IT.
- 남춘호. (2011). 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전북대사회과학연구소. 35(1): 29-69.
- 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동양사회사상」. 17: 203-269.
- 민인식·최필선. (2009).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상준. (2012). 사회신뢰와 국가의 부 창출과정. 「소비자학연구」. 23(2): 45-58.
- 박성진. (2003). 한국 사회 신뢰의 악순환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동향과 전망」. 58: 7-40.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9.

- 박진영·최혜원·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낮은 일반적 신뢰.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23-36.
- 박찬웅. (2006). 「시장과 사회적 자본」. 서울: 그린.
- 박통희. (2010).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보」. 44(1): 67-97.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박희봉·이희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105-128.
- 배정현. (2011). 아시아에서의 정부신뢰의 근원: 다수준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운석. (2010). 브릭스(BRICs) 국가의 사회자본에 대한 특성 비교: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3): 135-160.
- _____. (2013). 경기지역 사회신뢰 현황 변화에 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3(1): 47-73.
- 서울특별시. (2012). 「2011 서울서베이」.
- 손성림. (1999). 빈곤의 양상변화와 빈곤정책: 사회계층 양극화와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도시연구」. 5: 1-19.
- 양춘·김문조·손장권·박길성·김철규. (2001). 「현대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서울: 집문당.
- 엄묘섭. (2007).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문화와 사회」. 3(2): 7-45.
- 우천식·이경영. (2006). ‘사회이동’에 관한 영국의 최근 정책 동향. 「나라경제」. 2006년 6월호: 92-99.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 이동원. (2013). 사회신뢰의 결과와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3-09.
- 이병기. (2010).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 「제도와 경제」. 4(1): 123-152.
- 이수인. (2010).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민주화를 향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 및 정보의 매개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162-203.
- 이숙중·최준규·조현해. (2009). 지역구조변수가 신뢰로서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원진. (2011). 개인화인가 계층화인가?: 생애사건과 사회계층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5): 25-60.
- 이현수. (1999).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2): 37-56.
- 이형우·양승범. (2012). 사회신뢰의 국가 간 비교: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 간의 신뢰정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소. 38(3): 123-144.
- 임혁백. (2000).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장수찬. (2002a).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 「정부학연구」. 8(1): 45-68.
- _____. (2002b).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_____. (2004). 한국 연줄사회조직의 특성과 신뢰구조의 이해: 이중적 신뢰구조가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22(2): 359-394.
- _____. (2007).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의 하락과 그 원인: 국가간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125-156.
- _____. (2008). 신생 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엘리트 계급의 부패와 사회적 신뢰 구축의 실패. 「세계지역연구」. 26(3): 27-56.
- 정진홍. (2007). 종교와 신뢰의 문제에 대한 고찰. 김지희 편. 「신뢰사회를 향하여」. pp.152-187. 서울: 소화.
- 조선일보. (2010). “사다리가 사라진다” 시리즈 (7.5~7.13).
- 조영호. (2011). 사회가 불안하다: 빈부격차 심화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공동체 자본주의 실현 뉴 프레임 절실. 경인일보. 8.15:10.
- 조창희. (1984). 사회이동의 사회심리적 영향: 청소년 비행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논문집」. 17(1): 321-337.
- 최항섭. (2007). 정보사회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 2007년 사회적 자본 특별 심포지움 발표문. 대한상공회의소(2007.9.5).
- 통계청. (2011). 2011년 사회조사 결과.
- _____. (2012). 2012 한국의 사회지표.
- 한겨레21. (2013). 대한민국은 왜 세습에 분노하지 않는가. 제944호.
- 한준. (2008). 「신뢰: 한국사회의 제도에 대한 신뢰」.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 현대경제연구원. (2013). 현안과 과제: 한국 사회의 낮은 신뢰도: 중산층 회복은 ‘일자리 창출’로. 13-16.
- 홍두승. (1989). 계층구조와 계층의식: 사회조사자료를 통하여 본 현실과 전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1(1): 123-153.
- _____.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두승·구해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 Adler, P., and Kwon, S. (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Lesser, E.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Butterworth-Heinemann.
- Alesina, A., and La Ferrara, E. (2002).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 207-234.
- Banfield, Edward C.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Glencoe/IL: Free Press.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and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irdsall, N., and Graham, C. (eds.). (2000). *New Markets, New Opportunities?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Bjørnskov, C. (2008). Social Trust and Fractionalization: A Possible Reinterpret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3): 271-283.
- Blau, P. M. (1956). Social mo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290-295.
- Brehm, J., and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lark, A., and D'Angelo, E. (2009). Upward Social Mobility, Well-being and Political Preferences: Evidence from the BHPS. working paper. Paris School of 20 Economics. 17 October. (http://jma2012.fr/fichiers2009/C5/clark_dangelo.pdf).
- Edelman. (2012). 2012 Edelman Trust Barometer South Korea. (<http://www.edelman.kr/sites/en/pages/insights.aspx?ItemID=21>).
- Dalla Zuanna, G. (2007). Social mobility and fertility. *Demographic Research*. 17(15): 441-464.
- Delhey, J., and Newton, K. (2003). Who Trusts?: The origins of social trust in seven societies. *European Societies*. 5(2): 93-137.
- Dooley, D., Prause, J., and Ham-Rowbottom, K. A. (2000). Underemployment and depression: longitudinal relationship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421-436.
- Duru-Bellat, M., and Kieffer, A. (2008). From the baccalaureat to higher education in France: Shifting inequalities. *Population*. 63(1):119-154.
- Eaton, W. W., Muntaner, C., Bovasso, G., and Smith, C. (2001).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ve syndrome: the role of inter- and intra-generational mobility, government assistance, and work environ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1): 277-294.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_____.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2(1): 7-20.
- Gaviria, A. (2007). Social Mobility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Economia*. Fall 2007: 1-42.
- Giddens, A. (2009). *Sociology* (6th ed.). 김미숙 외 옮김 (2011).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Graham, C., and Picon, M. (2009). Who Trusts the System in Latin America: Some Insights from Happiness Economics. Paper presented to Notre Dame Conference on Social Exclusion, April 2009.

- Hochreigh, S., and Rotter, J. B. (1970). Have college students become less tru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11-214.
- Houle, Jason N. (2011). Psychological impact of intragenerational social class mobility. *Social Science Research*. 40: 757-772.
- House, James S., and Wolf, S. (1978). Effects of urban residence on interpersonal trust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029-1043.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Postmodernization Erodes Respect for Authority, but Increase Support for Democracy. In Norris, Pippa.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and Abramson, P. A. (1994). Economic Security and Value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336-354.
- Jin, L., and Tam, T. (2013). Subjective Social Status,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Health in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Hilton New York and Sheraton New York, New York, NY, Aug 09, 2013. (http://citation.allacademic.com/meta/p650238_index.html).
- Kasarda, J., and Billy, J. (1985). Social mobility and ferti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305-328.
- Kawachi, I., and Kennedy, B. P. (1997). The Relationship of Income Inequality to Mortality: Does the Choice of Indicator Matte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5(7): 1121-1127.
- Kelly, S. M. C., and Kelly, C. G. E. (2009). Subjective social mobility: data from 30 nations. In Haller, M., Jowell, R., and Smith, T. (eds.). *Charting the Globe: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84-2009*. London: Routledge. Chapter 6.
- Knack, S., and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1251-1288.
- Kocka, J. (1980). *White Collar Workers in America, 1890-1940: A Social-Political Histor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Sage.
- Kolankiewicz, G. (1994). Elites in search of a political formula. *Daedalus(Summer)*: 143-157.
- Lenski, G. (1954). Status Crystallization: A Non-Vertical Dimension of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405-413.
- Li, Y., Savage, M., and Warde, A. (2008). Social mobility and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Britai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9(3): 391-411.
- Lipset, S. M., and Bendix, R. (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 Lount Jr., R. B., and Pettit, N. C. (2012). The social context of trust: the role of statu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7: 15-23.
- Marshall, G., and Firth, D. (1999). Social mobility and personal satisfaction: Evidence from ten countr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0(1): 28-48.
- Mitra, A. (2008). Social capital, livelihood and upward mobility. *Habitat International*. 32: 261-269.
- Nee, V., and Sanders, J. (2001). Trust in Ethnic Ties: Social Capital and Immigrants. In Cook, Karen S. (ed.). *Trust in Society*, Vol. 2, The Russell Sage Foundation Series on Trus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374-392.
- Newman, K. S. (1999). *Falling From Grace: Downward Mobility in the Age of Afflu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Newton, K.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 van Deth, Maraffi, M., Newton, K., and Whiteley, P.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pp.3-24.
- _____.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Orren, G. (1997).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Nye, J. S., Zelikow, P. D. and King, D. C.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77-108.
- Patterson, O. (1999). Liberty against the democratic state: on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sources of American distrust. In Warren, M. E.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xton, P.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254-277.
- Payne, R. K. (2005).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overty* (4th ed.). 김우열 옮김. (2011). 「계층이동의 사다리」. 서울: 황금사자.
- Pharr, S. J., and Putnam, R. D. (eds.).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ri, M. and Robinson, D. (2005). Optimism and Economic Choice. NBER Working Papers 1136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장훈·강원택·김학노·김하영·유석진·백창재 옮김.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 _____.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December): 664-683.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othstein, B.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29(2): 207-241.
- Rothstein, B., and Stolle, D. (2001). Social capital and street level bureaucracy: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Paper prepared for the ESF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15-20 Sept., Exeter.
- Sargeant, A. (1999). Charitable giving: Toward a model of dono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 215-238.
- Slovic, P. (1993). Perceived Risk, Trust, and Democracy. *Risk Analysis*. 13(6): 675-682.
- Sorokin, A. (1959). *Social and Cultural Mobility*. Glencoe, IL: Free Press.
- Stevens, G. (1981). Social mobility and fertility: Two effects in o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5): 573-585.
- Stewart, K., and Gosain, S. (2001). An Exploratory Study of Ideology and Trust in Open Source Development Group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New Orleans, Louisiana, USA, December 16-19, 2001.
- Sztompka, P. (1996). Trust and emerging democracy. *International Sociology*. 11(1): 37-62.
- Turner, R. J., and Avison, W. R. (2003). Status variations in stress exposure: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research on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 488-505.
- Uslaner, E. (1999).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In Warren, M.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1-150.
- _____.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neman, R., and Cannon, L. W. (198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 172-175.
- Wheaton, B. (1994). Sampling the stress universe. In Avison, W. R., and Gotlib, I. (Eds.). *Stress and Mental Health: Contemporary Issu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Plenum, New York.
- Whiteley, Paul F. (1999). The origins of social capital, In J. van Deth, M. Maraffi, K. Newton and P.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pp.25-44.
- Wilkinson, R. G. (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김홍수영 옮김. (2008). 「평등해야 건강하다」. 서울: 후마니타스.
- Wilkinson, R. G., and Pickett, K. (2009).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Bloomsbury Press.

Wilson, L., and Mayer, P. (2007). Upward mobility and social capital: building advantage through volunteering. *South Australian Policy Online (SAPO)*. 2007-01-16.

Yamagishi, T., and Yamagishi, M. (1993).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부록 1〉 주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사회신뢰	1.000												
2. 계층상승 가능성	0.089***	1.000											
3. 자원봉사	0.006	0.036***	1.000										
4. 자부심	0.058***	0.187***	0.037***	1.000									
5. 위험도	-0.010**	-0.075***	0.083***	-0.023***	1.000								
6. 거주기간	-0.034	0.008*	-0.059***	0.004	-0.075***	1.000							
7. 탈물질 주의	0.056***	0.091***	0.057***	0.058***	0.075***	-0.069***	1.000						
8. 행복	0.176***	0.243***	0.048***	0.276***	-0.051***	-0.123***	0.148***	1.000					
9. 이념	0.156***	-0.028***	0.069***	-0.043***	0.146***	-0.040***	0.120***	0.044***	1.000				
10. 주관적 계층	0.074***	0.271***	0.086***	0.166***	0.051***	-0.027***	0.148***	0.321***	0.017***	1.000			
11. 소득	0.025***	0.138***	0.072***	0.187***	0.078***	-0.090***	0.118***	0.306***	0.033***	0.287***	1.000		
12. 학력	0.027***	0.090***	0.030***	0.099***	0.052***	-0.187***	0.141***	0.274***	0.071***	0.271***	0.290***	1.000	
13. 연령	0.016***	-0.061***	-0.107***	-0.113***	-0.114***	0.585***	-0.129***	-0.234***	-0.054***	-0.098***	-0.202***	-0.382***	1.000

주: *** p<0.01, ** p<0.05, * p<0.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Ladder on Social Trust: Focused on non-linear relationship

Lee, Jae-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on social trust. To this end, 「2011 Seoul Survey」 data were used. In this study, social trust is the subjective probability by which an individual expects that another individual or public institute performs a given action on which its social life depends. And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is defined as the subjective perception that the individuals' efforts can be improved their socio-economic status.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affect on social trust. But if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increases beyond a certain point, its affect is changed to a negative. Therefore the relationship of th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and social trust is non-linear. In the further study, panel regression analysis whether intragenerational or intergenerational mobility affect on social trust is required.

[Key Words: Prospect of Upward Mobility, Social Ladder, Social Trust]